

복음과 실제

* 10/30(금) 디도서 1-3장 (10/29가이드 참고) + 빌레몬서 1장

디도서

- 1장 인사, 교회 직제, 거짓 가르침
- 2-3:7 그리스도인의 행동 강령
- 3:8-11 거짓 가르침 관한 경고
- 3:12-15 개인적인 부탁과 인사

빌레몬서

- 1-3절 인사말
- 4-7절 감사의 말, 빌레몬을 위한 기도
- 8-20절 오네시모에 대한 청원
- 21-25절 마지막 부탁, 인사

Before 줄치며 읽기

빌레몬의 입장에서
바울의 편지를
통독해 보십시오.

After 묵상하기

복음이 나에게 가장
<실제적인> 가치입니까?
<실제적인> 기준입니까?

로마시대 <노예>는 살아있는 도구, 말하는 짐승이었습니다.

그들은 빛, 범죄, 정복, 태생적 이유로 노예가 되었습니다.
종종 주인으로부터 도망치는 노예들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운명에 체념치 않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혹은, 주인의 것을 훔치거나 중대한 선을 넘고서
별이나 보복을 피하고자 도망한 자들이었습니다.

<도망한 노예 fugitivus>에 대한 처벌은 가혹했습니다.
노예에 대한 생사여탈권은 주인에게 있었습니다.
도주한 노예들은 잡히지 않기 위해 '지하세계'로 숨었습니다.
신전으로 도망하여 더 나은 주인에게 팔리길 기다렸습니다.
일부는 <주인의 친구들>에게 피하기도 했습니다.
자기의 어려움을 살펴 입장을 대변해 줄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도주'가 아니라 주인의 집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참고도서

신약개론(데이비드 A 드실바)
백주년기념성서주석
WBC주석 빌레몬서
현대성서주석 interpretation

오네시모는 주인 빌레몬에게서 도망친 노예였습니다.
도주하는 내내 두렵고 불안했을 것입니다.
<주인의 친구인> 바울을 만나게 되었을 때(골4:9),
오네시모는 비로소 일말의 안도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맨 처음의 바울은 <주인의 친구>이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영적 아버지>입니다(10절).
오네시모는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었습니다.
잠깐의 안도와는 차원이 다른 평안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도망친 노예에서 그리스도인 <형제>가 되었습니다.
바울의 믿음의 후견 하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빌레몬과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빌레몬서는 매우 짧은 편지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여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는 <해방 manumiss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네시모는 이제 <노예>가 아니라 <형제>이기 때문입니다(15-16절).

두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룬 새로운 가족입니다.

도망한 노예에 대해 파격적인 대우를 요청하는 바울.

바울은 빌레몬에게 그런 요구를 할 만 한 위치였을까요?

사회적 지위로 보건데, 바울은 빌레몬보다 열등한 사람입니다.

로마 시민권자였고 신앙적인 배경이나 지식에 출중했지만,

직업이나 재산, 공적 지위로선 내세울 것이 없었습니다.

이에 비해 빌레몬은 신자 모임을 주관하고 후원할 만한 자산가였습니다.

그는 바울과 성도들이 <평안> 하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왔습니다(5-7절).

그러나 빌레몬은 바울에게 <빚진 자>이었습니다(19절).

바울을 통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만 한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8절).

또한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끼친 손해를 자신에게 돌리기까지(18-19절),

오네시모에 대한 깊은 애정과(10,12절) 복음적인 명분도 있었습니다(11,13절).

그럼에도 바울은 노예에 관한 로마법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네시모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라면 정작 빌레몬에게 군림하는 우를 범치 않았습니다.

그는 빌레몬이 자발적으로 결정하도록 기다렸습니다(14절).

본인이 스스로 결정할 자유를 얻었듯,

오네시모에게도 <하나님께> 스스로 응답할 자유 주기를 원했습니다(13-14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갈3:28).

빌레몬은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오네시모에 대한 결정이 바울과의 관계, 복음에 대한 진정성을 드러낼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주일에만 빌레몬의 형제이고 나머지 주중에는 노예인 것’이 아닙니다.

빌레몬은 사회가 ‘상식’이라고 여기던 사안들을 <진지하게> 복음 안에서 고민했습니다.

신앙은 현실적인 고민과 결정을 동반합니다.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와 반응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진정성을 드러냅니다.